모두 '일시적인 것'들



新 불교사자성어

㉔ 색즉시공(色卽是空)

색즉시공(色卽是空), '색(色)은 곧 공한 것' 이라는 뜻이다.

색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五蘊) 가운데 하나이다. 보통 '물질' 이라고 해석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적인 모든 것, 곧 사물 일체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 아파트 또 생활에 필요한 핸드폰, 신발, 냉장고, 옷장, 이불,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등 모든 것을 가리켜 '색(色)' 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사물만 공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은 물론 인간도 모두 공한 존재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일체개공' , '오온개공(五蘊皆空)' 이라고 한다. 오온(사람, 인간)도 모두 공하다는 인식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한 자유인이 된다. 오온개공은 나 자신은 물론, 영혼까지도 공하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살아 있을 때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우선은 육체가 있고 사물을 인식하고 사유하는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을 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육체와 정신. 곧 인간을 가리킨다)의 오온, 이 다섯 개의 요소 가운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

우파니샤드 등 고대 인도철학에서는 아트만, 즉 영혼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상정했다. 그 밖의 종교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도 영혼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말로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사후 세계'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죽으면 정말 어디로 갈까? 사후 세계는 자기 자신이 가게 될 지도 모르는 세계이므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갖가지 설이 대두되었지만, 그저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지수화풍(地水火風)' 이란 땅, 물, 불, 바람으로서 자연 속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색즉시공은 삼라만상 등 현상 세계만이 아니고 나 자신,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는 모두 공한 존재임을, 즉 공(空)이 진리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사상을 통해서 유(有)에 집착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고를 개선하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자는 것이 색즉시공의 의미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형적인 모든 존재는 공이다. 그 유형적인 것을 가리켜 불교에서는 '색(色)' 이라고 하고, 그러한 세계를 색계(色界)라고 한다. 사바세계, 곧 이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중국 멜로 영화 가운데 동명의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다. 탕웨이, 양조위 주연의 '색계' 이다. 불교의 색계는 그런 이미지의 색계가 아니고 현상 세계를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들을 모두 '일시적인 것' 들이라고 한다. 〈능엄경〉에서는 육진 분별 영사(六塵分別影事)라고 하여 우리의 안이비설신의가 만들어낸 신기루나 허상이라고 한다. 임시적, 일시적인 것들, 실체가 없는 가유적(假有)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존하지 않음, 실재하지 않음,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위하여 임시로 가설한 무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공의 철학은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동시에 진리이자 핵심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하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색(존재, 현상, 사물)과 공(空)은 둘이 아닌 하나(一)이다. 색과 공을 도식화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라는 뜻이다. 따라서 진리는 일원론이어야 하고 이원론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싼스끄리뜨(梵語) 원문은 "이 세상에 있어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질적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 현상을 떠나 있지는 않다.

또,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물질적 현상인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물질적 현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대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물질적 현상인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한자에서 '곧 즉(卽)' 자는 두 식 또는 두 수가 같음을 나타내는 부호 '=' 와 뜻이 같다. '똑같다' , '차이가 없다' 는 뜻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골짜기 찬 샘물', 설봉과 조주 다른 설법



격절록 강설

㉔ 제9칙 설봉고간(雪峰古澗)

[古則과 着語]

擧, 僧問雪峯 "古澗寒泉時如何" (戴得將來) 峯云 "瞪目不見底" (老婆心切) 僧云 "飮者如何" (正是降尊就卑) 峯云 "不從口入" (從什麽處入) 僧擧似趙州 (也須是這僧始得) 州云 "不可從鼻孔裏入" (也須是這老漢始得) 僧却問趙州 "古澗寒泉時如何" (放過即不可) 州云 "苦" (不妨難為咬嚼) 僧云 "飮者如何" (更不再活) 州云 "死" (灼然) 雪峯聞擧云 "趙州古佛從此不答話" (也是什麽心行)

어떤 스님이 설봉(雪峯, 설봉의존, 822~908)에게 물었다.

"옛 골짜기에 샘이 차가울 때 어떻습니까?" [머리에 이고 가져와보라.]

설봉이 말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도 밑바닥이 보이질 않는다." [노파심이 간절하구나.]

스님이 말했다.

"마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신분 높은 사람이 자신을 낮춰 천한 사람과 왕래하는 격이다.]

설봉이 말했다.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어느 곳으로 들어가는가?]

그 스님이 앞의 일을 조주(趙州, 조주종심, 778~897)에게 전하자, [모름지기 이런 스님이라야 한다.]

조주가 말했다.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모름지기 이런 노장이라야 한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옛 골짜기에 샘이 차가울 때 어떻습니까?" [놓쳐서는 안 된다.]

조주가 말했다.

"쓰다(苦)!" [씹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스님이 말했다.

"마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죽으면)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조주가 말했다.

"죽는다." [분명하다.]

설봉이 이를 듣고 말했다.

"조주는 고불이다. 이제부터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심보인가?]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眾中總道 雪峯不出這僧問頭 所以 趙州不肯 (多少人作者語話) 如斯話會 深屈古人 (灼然) 雪竇即不然 (看雪竇有甚麽長處) 斬釘截鐵 本分宗師 (分作兩邊) 就下平高 難為作者" (雪竇也出趙州纔續不得).

설두가 염해서 말했다.

"대중이 모두 말하기를 '설봉은 이 스님의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조주가 긍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한다. [여러 사람이 작자라도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은 고인(古人, 설봉)을 몹시 억울하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다.] 설두는 그렇지 않나니, [설두에게 무슨 특출한 것이라도 있는가 보라.]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 본분종사는 [양변으로 나누는군.] 낮은 것을 취해서 높은 곳을 고르게 하기에 작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설두야말로 조주의 권궤(綣繢, 올가미 또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존취비(降尊就卑)=강존임비(降尊臨卑):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천한 사람과 왕래를 함을 이르는 말.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㉔ 이해의 길 4

건물 전체 보려면 밖으로 나와라

"불교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불교에 대한 자기 나름의 철학이나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쉽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질문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아마 100명의 불자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똑같은 답변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이 나오는 몇 가지 답변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그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자는 가르침이 불교' 라는 답변이 있다. 매우 훌륭한 대답이다. 이는 흔히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로 알려진 내용으로 과거 일곱 붓다께서 공통으로 경계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諸惡莫作)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衆善奉行),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自淨其意), 이것이 모든 붓다의 가르침(是諸佛敎)이라는 뜻이다. 쉬우면서도 명쾌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선호하는 대답이다.

'그저 마음 하나 깨치는 것이 불교' 라는 선불교적인 답변도 있다. 주로 선사(禪師)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내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이므로 이를 깨치는 것이 불교라는 직설적인 대답이다.

불교의 모든 것을 마음 심(心) 한 글자로 압축한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차 한 잔 하고 가라(喫茶去).' 거나 혹은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 라는 알듯 모를 듯한 답변도 있다. 아예 '악(喝)!'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다. 조사선의 아우라가 물씬 풍기는 답변들이다.

불교는 '깨달음과 자비의 종교' 혹은 '지혜와 자비의 종교' 라는 대답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반대학이나 불교교양대학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불교는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자(覺者)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연기(緣起)나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 붓다가 깨친 내용을 체득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주로 불교철학이나 불교입문 등의 강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답변들은 불교를 설명하기에 부족하진 않지만, 서로 다른 내용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는 이유는 말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불교는 2, 3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100층 정도 되는 매우 높은 빌딩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깨달음과 자비의 가르침이라는 대답이 붓다 빌딩(Buddha building) 1층에서 말하는 방식이라면, '악!'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100층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 빌딩 각각의 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건물 안에서는 불교라는 건물 전체를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오면 1층에는 근본불교 간판이 걸려있으며, 100층에는 선불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불교' 라는 이름 앞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지역별로 인도불교, 중국불교, 티베트불교, 한국불교 등이 있고 시대적으로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이 있다. 주제별로는 화엄불교, 천태불교, 선불교, 정토불교 등이 있다. 불교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원불교도 자리하고 있다. 수식어가 많다는 것은 불교의 모습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층만 알면 다른 층은 불교가 아니라는 편견에 빠질 수 있다. 불교에도 하나만 아는 일식(一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각 층에는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종파마다 중시하는 경전과 수행 방식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안에만 있으면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 등 특정 경전이나 간화선, 묵조선, 위빠사나 등 자신들의 수행방식만 제일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불교라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 빌딩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몇 층에 위치하고 있는가?' 불자로서 꼭 필요한 질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社)大韓佛敎 蓮曹溪宗

종도모집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敎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암 내, 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敎 蓮曹溪宗 문화관광부등록번호 2018-2호

총무원장 : 지명 혜광 전화 : 054-481-3110 / HP : 010-7109-3111
총본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동로 465-11 팩스 : 054-481-3123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